하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이 욕망이다. 모든 이야기는 기원에 관한 것이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지만 기원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허무해지기만 하지 않나? (결론이 없어서)

현재의 질서에서 그 당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원을 찾는 것과 현재의 질서와의 관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기원에 대한 것은 연쇄적이다. 기원에 대한 것을 찾으면 그 기원의 기원에 대한 것…

“신화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설명하는 것이 신화학이다.

인간은 형편없음을 아는 존재

(절대적)시간은 죽음으로 가는 길

에로스 <–> 타나토스 상반되지만 그렇기에 극에서는 통하는 관계

크로노스가 아들을 잡아먹는 것은 그 이전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교체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다.

우라노스도 그렇고 크로노스도 그렇고 아들을 잡아먹는 모습에서 모두 어머니(가이아, 레아)가 아버지의 죽음을 말한다.

절대적 시간에서 “셍성”되는 것들은 모두 “필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 탄생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 죽음

각 신들의 형상에서 특징을 기억하자 (크로노스의 낫, 노인의 모습 등)